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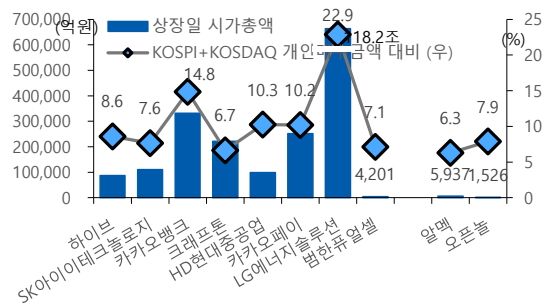


실태 점검이 요구된다

1. 분할과 신규상장 종목

- 최근 인적분할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 랠리가 확인. 높은 수준의 개인 거래량 증가가 배경.
- 6/26일 이후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공모가의 60%~400% 선에서 결정.
- 높은 시가 형성과 오후 급락, 과거 대형 IPO 수준의 개인 매수 집중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최근 신규상장 종목은 대형 IPO 수준의 개인 매수집중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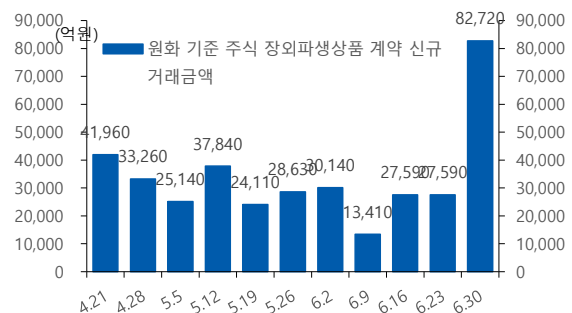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CFD를 넘어선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실태 확인

- 기존 계좌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에도 의심거래는 영향력을 더 확대.
-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으로 투기적 포지션이 우회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
- 당국의 CFD 규제를 벗어나는 동시에 레버리지 배율도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점증될 우려. 이는 익스포저도 확대됨을 의미.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이용할 경우, CFD 규제를 우회해 레버리지 매수가 출회될 수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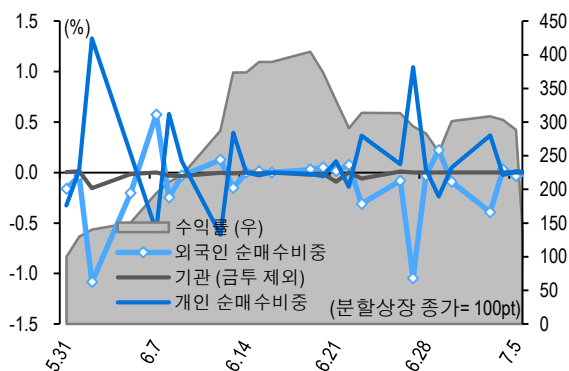
1. 분할이 주가 상승의 소재였던가?

당국의 최근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개선 의지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지만, 현 자본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소지와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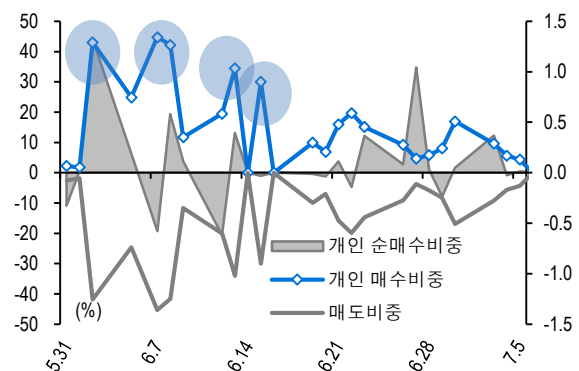
최근 인적 분할 종목들의 주가 랠리가 자주 확인된다. 종목마다 기업 분할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고, 거래재개일/상장일과 그 이후 거래일 주가 변동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분할 종목 전반의 상승과 랠리 지속은 과거와는 대비된다.

해당 종목의 투자자별 순매수 수준은 높지 않지만, 매수/매도금액을 구분해서 보면 상장주식수 대비 높은 개인 거래수준이 확인된다. 이후 거래일이 경과할수록 이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해당 수급의 장악력은 더 강화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차트1] 최근 인적 분할 종목의 전반적인 주가랠리가 자주 발견됨.



[차트2] 개인 거래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점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2.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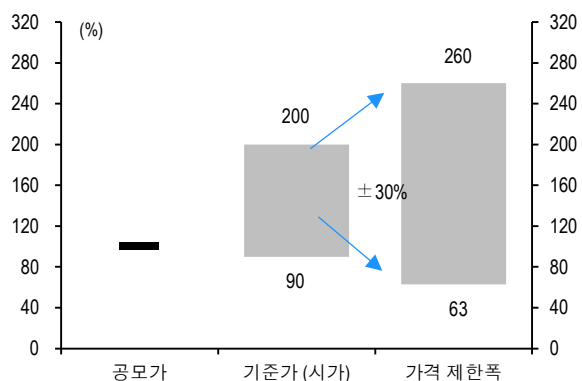
6/26일 이후 상장 종목부터 신규상장일 시가와 가격제한폭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가가 결정되고, 일반 상장종목과 동일하게 $\pm 30\%$ 로 가격 제한폭이 설정되었다.

개정 이후 상장일 시가에서 종가까지 공모가의 60%~400% 수준에서 주가 변동폭이 적용되고 있다. 소위 '파상' 등 주문속도 등의 차이로 소수 투자자가 거래를 독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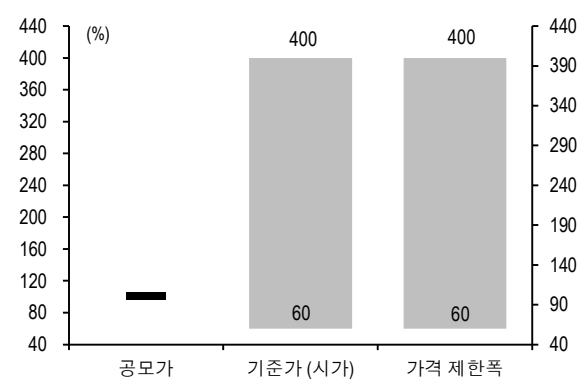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상장 종목을 보면 시가가 높게 형성되고 오후에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장중 가격 급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장 시가총액 대비 과거 대형 IPO 수준으로 개인 매수가 집중된 점에 주목한다.

상장 종목의 오후 급락 시점에 타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해당 거래일은 해외 PBS와 계약된 CFD의 정산기준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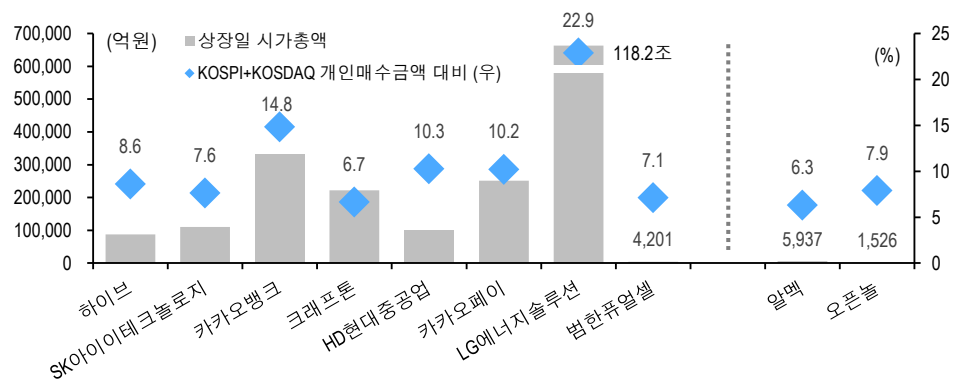
[차트3] 기존에는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 제한폭은 90%~200%에서 결정.



[차트4] 6/26일 이후 상장종목은 상장일 60%~400% 수준에서 가격 변동폭 확대



[차트5] 최근 신규상장 종목은 대형 IPO 수준의 개인 매수집중이 발견.



3. CFD를 넘어선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실태 확인

기존 계좌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각 증권사의 반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채널 의심 거래는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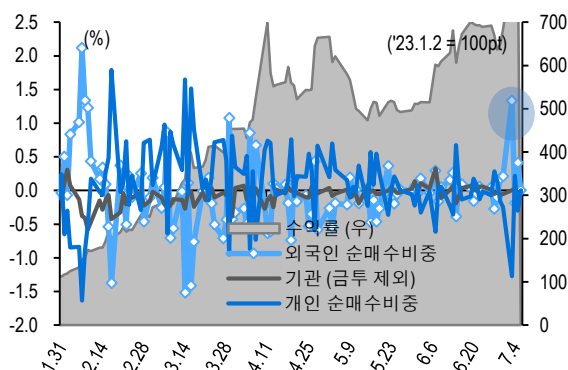
일부 증권사의 전산 반영 시차가 존재하겠지만, 당국과 국내 증권사의 조율 기간과는 상당기간 지난 점에서 해당 가능성은 낮게 본다. 해외 증권사 및 역외 CFD가 차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려하는 점은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으로 해당 투기적 포지션이 우회 이용하는 점이다. 최근 일부 종목에서 높은 주가 상승이 확인되는데, 상관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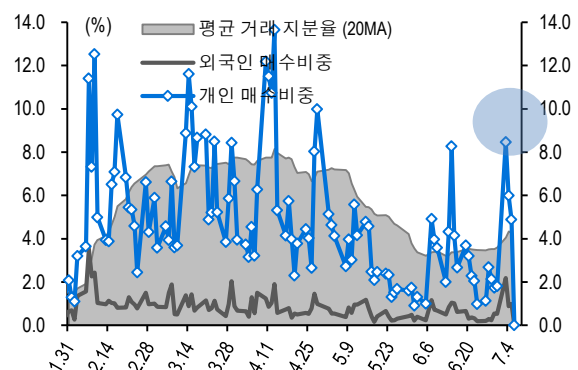
CFD는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므로 이를 제외한 상품계약을 이용할 경우, 당국이 제한을 적용한 규제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으로 레버리지 배율 또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영향은 더 크게 될 것이다.

문제는 레버리지 배율이 높다면, 해당 익스포저 또한 높아지게 되는 점이다. 최근 원화 기준 주식 장외파생상품 신규거래가 증가한 점 등은 당국의 실태점검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차트6] CFD 채널 의심 거래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는 모습.



[차트7] CFD 규제 이후에도 과도한 개인 매수와 외국인 순매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동일.



[차트8]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이용할 경우, CFD 규제를 우회해 레버리지 매수가 출회될 수 있음.

